

12장

탈식민주의, 과거를 다시 생각하고 미래를 다시 상상하다

시아바시 사파리 아시아언어문명학부

● 오늘날에도 유럽 식민주의의 유산은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하다. 탈식민주의는 여러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세계를 분석하기 위한 유용한 렌즈이며, 인문학과 사회과학에서 중요한 학문 분야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에서 중요한 이론적 틀로 부상했다. 탈식민주의 학자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인간 사회에 대한 식민주의의 영향에 대해 연구한다. 그들은 식민주의의 역사적 경험, 식민 역사가 오늘날 계속해서 우리의 세계를 형성하는 방식, 식민 유산으로부터 자유로운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질문한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탈식민주의 학자들의 답변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다. 사실 탈식민주의는 거대하고 획일적인 사고의 집합체가 아니다. 식민주의가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던 것처럼, 탈식민주의 역시 다양성을 특징으로 한다. 어떤 국가(예: 인도)에서는 탈식민주의가 직접적인 식민주의에 대한 반응이었던 반면, 간접적인 식민주의에 대한 반응으로 탈식민주의적 사고가 등장한 국가(예: 이란)도 있다. 이에 더해, 탈식민주의는 각 국가의 특정한 사회경제적 구조, 정치적 형성물, 문화적 전통을 반영한다.

이 장에서는 탈식민주의의 기원, 전개 및 주요 주제를 개략적으로 다룬

다. 첫 번째 섹션은 탈식민주의 사상에서 분기점이 되었던 1955년 반둥회의에 대한 간략한 논의로 시작해 20세기 후반 탈식민주의 사상의 중요한 전개와 영향력 있는 일부 인물들을 다룬다. 이 섹션에서 논의되는 영향력 있는 탈식민주의 지식인으로는 치누아 아체베(Chinua Achebe), 에메 세제르(Aimé Césaire), 프란츠 파농(Frantz Fanon),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 라나지트 구하(Ranajit Guha),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Gayatri Chakravorty Spivak), 월터 D. 미놀로(Walter D. Mignolo)가 있다. 이어지는 섹션에서는 반(半)식민주의(semi-colonial) 맥락에서 탈식민주의 사례로서 이란에 초점을 맞춘다. 해당 섹션에서는 잘랄 알레 아흐마드(Jalal Al-e Ahmad), 알리 샤리아티(Ali Shariati)와 같은 이란의 지식인들이 자국 내 서구 지배의 결과를 비판하기 위해 탈식민주의 분석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살펴본다. 마지막 섹션에서는 탈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일부 비평가 오늘날 탈식민주의 연구에서 진행 중인 토론에 대해 언급한다.

반둥 회의: 탈식민주의의 분기점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탈식민지화(decolonization)의 물결이 일고 있던 시기에 1955년 4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아시아 및 아프리카 29개국의 지도자들은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다. 참가국의 인구를 합치면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었다. 참가국 대부분은 신생 독립국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식민주의 이후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었다. 각국 대표단의 지배적인 의견은 공식적인 식민주의가 종식되고 있었지만 식민주의의 경제적, 문화적 결과는 계속해서 전 세계에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견해는 개회 연설을 한 인도네시아 대통령 수카르

노(Sukarno, 1901-1970)가 식민주의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서구의 경제적, 문화적 통제라는 형태로 여전히 살아있다고 선언한 것에서 포착된다. 비슷하게 반둥회의의 다른 발표자들도 직접적인 식민주의가 종식되었지만 과거 식민지였던 국가에서 서구의 경제적, 정치적 지배가 제국주의와 신식민주의(neocolonialism)의 형태로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둥 회의의 또 다른 주요 주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문화의 가치를 긍정하는 것이었다. 회의 발표자들에 따르면, 유럽 문화가 비유럽 지역의 문화보다 내재적으로 우월하다는 유럽의 주장은 전 세계적으로 식민주의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도움이 된 인종차별적 가정에 근거한 것이었다. 발표자들은 비유럽 국가들이 현대 세계의 경제적, 정치적 도전 과제에 대해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입장을 표명한 사람 중에 실론(스리랑카) 총리였던 존 코텔라왈라(John Kotelawala, 1897-1980)가 있다. 그는 연설에서 모든 인류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서구의 지혜는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위대한 종교와 문명의 요람이었으며 두 대륙의 각국 국민들은 그들의 고대 전통의 지혜를 사용하여 현대 세계의 주요 도전 과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둥 회의 마지막 날, 각국 대표단은 식민주의의 경제적, 문화적 유산을 극복하기 위한 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최종 성명에 서명했다. 최종 성명의 첫 번째 섹션은 탈식민 시대에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이 직면한 경제적 도전 과제에 초점을 두었다. 성명에서는 식민주의가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적 저개발에 대해 원인을 제공했으며 그 이유는 식민주의하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이 서구에 원자재를 공급해야 했고 서구에서 생산한 제품의 수입국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에 지역적 제

조 역량 개발을 통한 경제 다각화를 권장했다. 이외에도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기술적으로 더 발전한 국가에 다른 국가들과 노하우를 공유할 것을 촉구했다.

최종 성명의 두 번째 섹션은 식민주의의 문화적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이 “정신적이고 보편적인 토대에 바탕을 둔” 풍부한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으나 식민주의로 인해 식민지국의 민족문화가 억압받았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국가 간 문화적 접촉이 방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최종 성명을 통해 모든 참가국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국가 간의 문화적 접촉을 되살리고 유럽 식민주의의 문화적 결과를 극복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선언했다.

반동 회의 이후: 전 세계 탈식민주의 사상의 개요

반동 회의를 계기로 유럽 식민주의의 계속되는 유산에 관해 설명하고 이러한 식민주의 유산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확인하는 새로운 이론들이 부상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 새로운 이론 중에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시작된 종속이론(dependency theory)이 있었다. 라울 프레비쉬(Raul Prebisch, 1901-1986), 셀소 푸르타도(Celso Furtado, 1920-2004), 테오토니오 도스 산토스(Theotônio dos Santos, 1936-2018) 등 종속이론가들은 수 세기 동안 계속된 유럽 식민주의의 결과로 ‘중심’과 ‘주변’으로 구성된 세계화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생겨났다고 주장했다. 중심 국가들(즉 구식민주의 열강)은 주변 국가들(즉 구식민지)을 착취함으로써 부강해졌고, 식민주의가 공식적으로 종식된 후에도 중심부와 주변부 간의 불평등한 관계가 지속된 것이다. 현대 세계에서 원자재는 계속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주변 국가에서 중심 국가로 흘러가

고 중심 국가는 고가의 공산품을 주변 국가로 수출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 결과 중심 국가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주변 국가는 저개발 상태로 남아있다. 안드레 군더 프랑크(Andre Gunder Frank, 1929-2005)와 사미르 아민(Samir Amin, 1931-2018)과 같은 일부 종속이론가들은 의존의 고리를 끊고 대안적인 미래를 건설하려면 식민주의-자본주의 경제 시스템과의 “연결을 끊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1950~1960년대에 종속이론을 통해 탈식민주의적 정서가 경제적 언어로 표현되었던 것과 동시에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폭넓은 분야의 지식인과 예술가들이 탈식민주의의 문학, 문화, 예술, 미학적 언어를 개발하는 데 참여했다. 이 운동의 선구자 중 한 사람은 나이지리아 소설가 치누아 아체베(Chinua Achebe, 1930-2013)였다. 그는 영국 식민 통치하의 나이지리아에서 태어났고 그의 첫 소설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Things Fall Apart*, 1958)가 출간되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이 소설은 나이지리아 남동부 지역의 유럽 식민주의에 관해 이야기하며 원주민인 이보(Igbo)족과 기독교도인 식민지 개척자들 사이의 긴장을 묘사한다. 탈식민주의의 또 다른 선구자인 에메 세제르(Aimé Césaire, 1913-2008)는 아프리카계 카리브인으로 시인이자 극작가였다. 프랑스 식민지였던 마르티니크섬에서 태어난 세제르는 네그리튀드 운동으로 알려진 문학 및 문화 운동의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네그리튀드 운동은 프랑스의 식민지 동화 정책을 비판하고 아프리카 문화와 전통으로의 복귀를 장려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탈식민주의 대표자는 아마도 프란츠 파농(Frantz Fanon, 1925-1961)일 것이다. 세제르와 마찬가지로 파농은 마르티니크섬 출신의 아프리카계 카리브인이었다. 그는 고등학생 시절 학교 선생님이었던 세제르의 영향을 받았다. 1943년 파농은 마르티니크섬을 떠나 나치 독일에 맞서 싸우던 자유 프랑스군(Forces françaises libres)에 입대했다. 제2차 세계대

전이 끝난 후 파농은 프랑스에서 대학교에 다니며 정신의학을 공부했다. 전문 교육을 받은 정신과 의사로서 그는 인종주의와 식민주의의 감정적 영향에 특히 관심을 가졌다. 그의 첫 번째 저서인 『검은 피부, 하얀 가면』(*Black Skin, White Masks*, 1952)은 식민주의가 흑인에게 미친 심리적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그는 식민지 상황에서 피식민자가 식민자와의 관계에서 자신들의 열등함에 대한 인종차별적 가정을 내면화한다고 주장했다.

1953년 파농은 알제리로 가서 프랑스 식민주의에 반대하는 알제리 저항군에 합류했다. 그는 두 권의 저서 『멸망하는 식민주의』(*A Dying Colonialism*, 1959)와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The Wretched of the Earth*, 1961)에서 알제리에서의 경험에 대해 논했다. 장 폴 사르트르(Jean-Paul Sartre, 1905-1980)가 서문을 쓴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은 여러 학자가 탈식민주의 이론에서 중요한 작품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 이 책에서 파농은 식민지 사회가 식민주의의 문화적, 심리적인 유산을 극복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는 탈식민주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제시했다. 파농은 진정한 탈식민화는 구식민지 사람들이 유럽을 모방하는 것을 그만두기로 결심할 때야 비로소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유럽의 근대성이 폭력과 파괴를 가져왔기 때문에 구식민지 사람들은 유럽의 경제 체제, 정치적 형성물, 문화적 규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70~1990년대에 탈식민주의 사상은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 시기 탈식민주의 이론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 중 하나로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 1978)이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은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문화 이론가인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 1935-2003)가 저술했다. 사이드는 팔레스타인이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던 시기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팔레스타인인으로 기독교도였다. 저서 『오리엔탈리즘』에서 그는 유럽 학문이 무슬림이 다수인 아시아 및 아프리카 사회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것에 대해 분석했다. 그의 분

석에 따르면 유럽 학자들은 종종 무슬림이 다수인 사회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이러한 사회들을 ‘이슬람 오리엔트(Islamic Orient)’라는 동질적인 집단으로 환원했다. 더 나아가 그는 유럽 학문에서 ‘이슬람 오리엔트’를 정적이고, 후진적이고, 미개하며, 옥시덴트(Occident 즉, 유럽 사회)보다 열등한 것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사이드의 분석에 따르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학문 분과는 유럽 식민주의의 지적 부문이었으며 무슬림이 다수인 사회에서 유럽의 식민주의 및 신식민주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었다.

이 시기에 탈식민주의 사상과 관련한 또 다른 중요한 전개는 서발턴 연구(Subaltern Studies)로 알려진 새로운 학문 분야의 탄생이었다. 서발턴 연구는 1980년대에 남아시아 학자 단체가 인도아대륙의 식민주의 및 자본주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내러티브를 만들기 위해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탈식민주의 분석을 결합함으로써 시작됐다. 이 단체의 주요 회원 중 한 명으로 라나지트 구하(Ranajit Guha, 1923~)가 있다. 그의 역사 연구는 인도 사회에서 소작농을 포함한 하층 사회 계급이 지역 엘리트와 유럽 식민지 개척자의 권력에 동시에 저항함으로써 주체성을 행사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었다. 남아시아 서발턴 연구(South Asian Subaltern Studies) 단체의 또 다른 회원으로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Gayatri Chakravorty Spivak, 1942~)이 있다. 스피박은 식민지 맥락에서 언어, 젠더, 문화의 관계를 조사한다. 스피박의 1988년 에세이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Can the Subaltern Speak?)는 식민지 인도의 과부 희생 관행에 대한 학술적 묘사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탈식민주의 이론에서 많이 인용되는 영향력 있는 연구 중 하나이다.

1990년대 초에는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학자가 라틴아메리카 서발턴 연구(Latin American Subaltern Studies) 단체를 결성했다. 남아시아 서발턴 연구 단체가 주로 식민 과거에 대한 대안적 해석을 생산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면, 라틴아메리카 서발턴 연구 단체는 식민 구조와 유럽 중심적 규범이 탈식민주의

맥락에서 계속해서 작동하는 방식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라틴아메리카 서발틴 연구 단체는 또한 식민 구조 및 유럽 중심적 규범과의 연결을 단절하기 위한 전략 개발에 집중하기도 한다. 이 단체의 회원인 아르헨티나인 철학자 월터 D. 미놀로(Walter D. Mignolo, 1941~)는 근대 민족국가, 자본주의 경제, 현대의 지식 생산 체제, 유럽 중심적 진보 개념, 유럽 중심적 예술 및 미학 표준이 모두 “권력의 식민주의 매트릭스”라는 복잡한 구조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미놀로에 따르면 진정한 탈식민화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및 미학 영역에서 유럽 중심적 패러다임의 지속되는 헤게모니에 반대하는 “인식적 저항”을 필요로 한다.

이란: 반식민지적(semi-colonial) 맥락의 탈식민주의

많은 탈식민주의 사상 선구자들이 유럽의 직접적인 식민주의를 경험한 지역 출신이었지만, 탈식민주의 정서는 곧 직접적인 식민주의를 경험하지 않은 많은 비유럽 국가로도 퍼졌다. 이란도 그러한 국가 중 하나로, 식민주의를 간접적으로 경험했다. 카자르 왕조(1785-1925) 시대에 이란은 서아시아에서 지배력을 얻기 위해 경쟁하던 유럽 제국들의 통제를 받는 반(半)식민지 국가가 되었다. 이러한 반식민지 상황에서 이란은 러시아, 영국 등 주요 외세에 일련의 경제권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경제권 양도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이란산 석유를 채굴하고 수출할 독점권을 영국에 내준 1901년 석유 채굴권 양도이다. 그 결과 설립된 영국 소유 기업인 ‘앵글로-페르시아인 정유회사[Anglo-Persian Oil Company, 이후에 ‘브리티시 펄트롤리엄(British Petroleum)으로 사명을 변경함]’은 20세기 대부분의 기간에 이란의 석유 생산을 통제했다.

이란이 서구 제국주의 열강에 종속된 상태는 팔레비 왕조(1925-1979) 시대에도 계속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이란은 중립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러시아 연합군의 침공을 받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영국과 러시아를 대신하여 이란에서 주요 제국주의 세력이 되었고, 초기 냉전 상황에서 지배적인 경제적, 군사적 지위를 이용해 팔레비 국가 내 친미 성향 세력을 확보했다. 1950년대 초 아시아와 아프리카 전역에서 반(反)식민주의(anticolonial) 및 민족해방 운동이 전개되던 시기에 모하마드 모사데그(Mohammad Mosaddegh) 총리는 이란의 석유 국유화 캠페인을 주도했다. 이 캠페인은 이란의 석유 국유화를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위협으로 본 서방 정부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1953년 영국과 미국 정부는 이란에서 군사 쿠데타를 조직하여 모사데그 정부를 무너뜨리고 서방에 우호적인 정부를 세웠다.

쿠데타를 통해 미국의 이란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었다. 1960~1970년대 이란에서는 대부분의 주요한 경제적, 정치적 결정이 미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진행되었다. 또한 1953년 쿠데타를 계기로 이란의 서구화 개혁 속도가 빨라졌다. 팔레비 왕조는 이란의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서구식으로 현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서구화 개혁을 시작했다. 이러한 서구화 개혁 중 한 가지로 1930년대에 팔레비 왕조의 첫 왕은 여성이 이슬람 전통 베일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남성에게 유럽 스타일의 정장과 모자를 착용할 것을 요구했다. 서구화 개혁에는 이란의 전통적인 법원을 서구식 법원으로 교체하고 서구식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포함되었다. 서구화 개혁은 이란에서 중대한 사회적, 문화적 분열을 야기했다. 이란 엘리트층이 점차 서구화되는 동안 이란인 대다수는 전통적인 규범을 고수했고 서구화 개혁에 소외감을 느꼈다.

20세기 후반 이란에 탈식민주의 사상이 들어오고 인기를 끌게 된 것은

100년 동안 이어진 반(半)식민지적 종속의 역사와 서구 지배력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특히 많은 이란인이 1953년 쿠데타를 이란의 천연자원을 서구의 통제하에 두려는 시도로 보았기 때문에 서구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지배에 대한 대중의 저항이 일어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제르, 파농을 비롯한 선구적인 탈식민주의 사상가들의 저술이 페르시아어로 번역되었으며, 이란의 많은 저명한 지식인이 탈식민주의 비평을 담은 중요한 글을 발표했다. 그러한 지식인 중에 잘랄 알레 아흐마드(Jalal Al-e Ahmad, 1923-1969)가 있다. 1940~1950년대에 알레 아흐마드는 그의 소설 작품과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에세이로 유명해졌다. 그는 이란 석유를 국유화하자는 모사데그의 캠페인을 지지했고, 1953년 쿠데타 이후 팔레비 왕조와 왕조의 서구화 정책을 맹렬히 비판했다. 1961년 출간된 『서구중독증』(영어: *Westoxication*, 페르시아어: *Gharbzadegi*)이라는 짧은 책에서 그는 서구에 대한 의존과 서구 근대성을 모방하는 것이 이란 사회에 해로운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팔레비 왕조의 서구화 정책은 이란을 반(半)식민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알레 아흐마드에 따르면 ‘서구중독증’이라는 질병이 많은 이란인이 자신의 문화와 전통으로부터 소외되게 했다. 그는 이란의 지식인, 문인, 예술가들이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서구의 지적, 문학적, 예술적 경향을 모방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시기에 이란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또 다른 탈식민주의 사상가는 알리 샤리아티(Ali Shariati, 1933-1977)이다. 1953년 쿠데타 이후 샤리아티는 반정부 비밀 조직에 합류했다. 그는 정치 활동을 하다가 1957년에 잠시 투옥되었다. 2년 후 프랑스로 건너가 소르본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했다. 그는 파리에서 팔레스타인, 알제리, 콩고 등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에서 온 반식민주의 지식인, 활동가들과 친분을 쌓았다. 같은 시기에 그는 파농의 글들을 접했고 일부 저술을 프랑스어에서 페르시아어로 번역하기 시작했다.

1964년 샤리아티는 이란으로 돌아와 대학 강단에 섰고 많은 책을 집필했다. 그는 강의와 저술에서 종종 파농의 탈식민주의 이론을 사용해 팔레비 왕조의 서구화 정책을 비판했다. 유럽의 근대성을 모방하려는 팔레비 왕조의 시도가 이란인이 진정으로 현대적이지 못한 채로 전통에서 단절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상황을 ‘가짜 현대화(pseudo-modernization)’로 명명했다. 1972년 그는 ‘자신에게 돌아가기’(영어: *Return to the Self*, 페르시아어: *Bazgasht beh khish*)’라는 주제로 강연했고, 이 유명한 강연에서 이란이 진정한 현대화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구의 설계를 모방하기보다 이란의 문화유산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알레 아흐마드와 샤리아티 모두 이란인이 지역의 전통적, 문화적 가치에 의존해 미래에 대한 탈식민주의적 비전을 개발해야 한다고 믿었다. 특히 두 사람은 영감의 원천이자 서구 근대성의 문화적, 철학적 토대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슬람 전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알레 아흐마드와 샤리아티의 저술은 1960년대, 1970년대의 이란 사회에 깊은 영향을 남겼다. 1979년 이란 반군 주체 혁명 당시 두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지만 그들의 사상은 혁명 운동에 참여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혁명 이후 들어선 이란이슬람공화국으로 알려진 이란 국가는 1979년부터 알레 아흐마드와 샤리아티의 사상을 사용해 이슬람화 계획을 합법화했다. 이슬람화 계획에는 이슬람법 시행, 여성의 베일 착용 의무화, 대학에서 서구 교재의 사용 금지, 이슬람 사회과학 및 인문학의 발전 장려, 예술과 문학에서 이슬람 주제의 사용 증진 등이 포함되었다.

결론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지도자들이 식민주의의 모든 징후를 없애겠다고 맹세한 반동회의 이후 거의 70년이 흘렀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유럽 식민주의의 유산은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하다. 예를 들어, 과거 식민주의 열강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남아 있지만 과거에 식민지였던 많은 국가는 빈곤과 저개발 문제로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국제통화기금(IMF)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국제기구 다수를 서방 강대국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또한, 일부 학자는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현대적 지식과 규범(학문적 지식, 문화적 규범, 미적 기준을 포함)의 생산이 여전히 상당히 유럽 중심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동시에 탈식민주의 자체도 심각한 비판을 받고 있다. 비평가들은 혁명 이후의 이란을 포함해 일부 국가에서 탈식민주의가 권위적인 사회적, 정치적 조치를 합법화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말한다. 탈식민주의 비평가들은 또한 탈식민주의가 국가 간의 문화적 차이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문화상대주의를 조장하고 보편적 기준(인권에 대한 보편적 기준을 포함)을 거부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한다. 탈식민주의 분석이 계급이나 젠더 등 다른 중요한 분석 범주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도 일반적인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탈식민주의는 현대 세계를 분석하기 위한 유용한 렌즈로 남아 있으며, 탈식민주의 연구는 오늘날 인문학과 사회과학에서 중요한 학문 분야로 인정받는다. 최근 몇 년 동안 탈식민주의 학자들은 계급, 젠더, 섹슈얼리티와 같은 이슈에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탈식민주의에 대한 일부 비판을 다루려고 노력했다. 더욱이 탈식민주의 연구 분야에서는 문화 상대주의, 탈식민주의와 보편적 인권 개념 간의 관계, 문화적 차이와

경제구조 간의 관계, 식민주의 유산 극복을 위한 계획 구현 시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한 토론이 현재도 진행 중이다. 또한 탈식민주의 학자들은 미래의 탈식민주의적 비전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탈식민주의적 전통의 유용성에 관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시아바시 사파리 Siavash Saffari is an Associate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Asian Languages and Civilization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completed a Ph.D. in Political Science at the University of Alberta (2013), followed by a postdoctoral fellowship in Middle Eastern Studies at Columbia University (2016). His primary areas of research are modern Iranian intellectual history, modern Islamic political thought, and postcolonial and decolonial theory. He is the author of a monograph, titled *Beyond Shariati: Modernity, Cosmopolitanism and Islam in Iranian Political Though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and he is the co-editor of two books: *Unsettling Colonial Modernity in Islamicate Contexts* (Cambridge Scholars, 2017); and, *Spirit and Defiance: Ali Shariati in Translation* (forthcoming from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24). He may be contacted via email at ssaffari@snu.ac.kr.
